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음 7월 14일) 제16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돈 없는 전북’의 설움

아이들 삶의 질 까지도 ‘하위권’

서울 등 7개 광역시는 ‘상위권’

대구, 삶의 질 가장 높아

“도농간 격차는 더 뚜렷
정부 정책적 노력 필요”

돈 없는 전북의 설움이 아이들의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중 어린이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조사됐다.

아동복지기관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회를 열어 지난해 기준 16개 시도의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6개 광역시가 1~7위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다.

이는 각 지역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중학교 1학년 어린이 총 8,68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연구진은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식 등 8개 영역으로 나눠 조사했는데, 이들 영역별 점수도 대부분 대도시가 농어촌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도농간 격차

가 올해 더욱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지역은 대구였으며 이어 울산, 부산, 대전, 서울, 인천, 광주 등 순이었다.

이어 제주,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도 단위 지역이 8~16위를 차지했다.

이 중 전북은 조사가 처음 이뤄진 2012년 15위, 2013년 13위, 2015년 16위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시도별 아동 삶의 질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립도·사회복지예산 비중·아동학대 사례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지립도가 높고, 복지예산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기준 재정지립도는 인천(64.45%), 경기(66.59%), 서울(84.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북(33.31%), 전북(29.66%), 강원(27.15%), 전남(23.76%) 등의 순으로 낮았다.

이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0년 안에 아동 행복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추세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민형 기자

광복절인데도?... 폭염, 아직도 기승

광복절인 15일 전국 최고기온이 34도에 이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지다가 20일이 넘어서야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서울에 발효됐던 폭염경보는 주의보로 격하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있는 상태다.

오전 11시 기준 폭염경보 발효 지역은 세종·울산·부산·대구·광주·대구·충북·경남 전역과 경북·충남·전북·전남 일대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서울과 강원 서부 일대, 응진

군을 제외한 인천, 서해안 인근 지역 등에 발효됐다.

주요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3도, 수원 32.4도, 춘천 33도, 청주 33도, 대전 35.2도, 전주 33도, 광주 31.3도, 대구 35.5도, 부산 31.4도, 제주 31.6도 등을 기록했다.

열대야 현상도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통상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경우 열대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없었던 날은 7월29일과 지난 3일, 단 이틀뿐이다. 열대야는 19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시



손 ‘번쩍’

지난 13일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개최된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지자들 앞에서 있다. <관련기사 3면>

35사단 전주대대의 완주 이점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7월 초 전주시에서 이어 국방부가 최근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완주군내로 전주대대의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이날 9일 발송했다.

국방부는 ‘완주군의 전주대대 완주군내 이전사업 백지화 요구에 대한 의견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전주시 공문을 참고해 회신한다”며 “전주시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협의하고 있는 35사단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전주시-완주

35사단 전주대대 완주 이전 사실상 백지화

“국방부, 완주군 동의 없이 추진할수 없어”

군간 이동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사실상 완주군 동의 없이는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더욱이 완주군은 이 사업을 동의할 의사가 추호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간 완주군민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대대 이전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7월 6일 완주군으로 보낸 공문에서 완주군의 동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주대대 이전반대 법안주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법안주관 공동위)는 “완주군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 공문을 받은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이는 완주군민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활발 뭉쳐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고, 군민들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행정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법안주관 공동위는 국방부가 전주대대 이전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하지 않은 만큼, 공동위를 존치시키고, 향후 전주대대 이전사업 추이를 지켜보며 대처방안을 강구기로 했다.

다만 주요 지역에 내전 전주대대 완주군내 이전 반대 현수막은 철거해 각 지역별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동안 전주대대 이전의 백지화를 위해 중지를 모아준 공동위를 비롯한 모든 군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 국가발전·평화통일의 주역 되길” 도내 곳곳 광복절 기념행사

전북도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도청 공연장에서 경축식을 진행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황현 도의회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김경수 제35사단장,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김기현 도민회장과 보훈단체장,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경축식은 도내 유일 생존 독립애국지사인 이석규 선생 소개와 최근 타계한 故 이희동 선생의 항일독립운동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념공연 ‘판소리, 안중근 의사가’, 도민과 함께 만세삼창, 최근 개봉된 한국영화 ‘검사외전’이 상영됐다



15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독립정신의 의미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복지사와 참가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전주사고를

지켜낸 충성스러움과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을 휘날린 기세, 전통문화를 계승해온 정의를 이어 전북이 국가

발전과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나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축식 이후 송 지사와 주요 기관장, 보훈단체 회원 등은 전주시 독립운동추념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정오에는 종남문 종각에서 33회의 타종행사를 진행했다.

이외 도내에서는 군산시와 정읍, 김제, 진안, 고창 지역에서도 각각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기념행사 등을 개최했다.

한편 전북도는 리우올림픽 및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도청사 정문에 대형태극기(11mX16.5m)를 게양하는 등 청사 주변은 태극기물결을 이루자

다. /고민형 기자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문화·관광·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사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정기사의 기념관